인문연구 제87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19. Vol. 87, No. 4, pp.85~116
http://dx.doi.org/10.21211/JHUM.87.4

다중매체 언어 읽기와 '멀티리터러시-글쓰기' 교육

- 매개체로서의 스마트폰 활용 가능성 모색을 중심으로 -*

손미란**

〈차 례〉

1. 서론
2. 다중매체 언어 읽기의 필요성
3. 스마트폰의 현장성 강화와 멀티리터러시 교육 목표
4. '멀티리터러시-글쓰기'의 실제
5. 결론

【국문초록】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교육현장도 변화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이라는 새로운 지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되는 정보를 읽는 능력인 리터러시의 새로운 확장 또한 요하게 되었고 이미지, 영상 등 미디어와 접목된 다양한 매체를 읽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24일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양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다시 기초로: 동서양 자유학예교육의 르네상스)에서 발표한 논문 "멀티리터러시 교육을 활용한 다중매체 언어 읽기와 글쓰기의 연계"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의사소통교육부 전임연구원

고 새롭게 조합하는 능력, 즉 멀티리터러시Multiliteracy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멀티리터러시에 대한 문제 제기는 활자매체를 벗어난 새로운 매체 읽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직결한다.

멀티리터러시 글쓰기는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이라는 실제적 공간에 직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정보를 수합하고 선별한 후 종합 분석하여 글쓰기를 수행했을 때 완성된다. 본고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멀티리터러시 글쓰기의 현장성을 높이고 학습자들의 디지털 사고력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를 위해 수업 내 매개체로서의 스마트폰 활용 가능성에 대한 방안 또한 함께 살펴보았다.

교육에서 매체를 활용하고자할 때 중요한 것은 매체를 통해 표현된 기호와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을 동시에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어진 텍스트가 영상 매체일 경우, 영상을 읽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때 학생들은 수많은 영상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영상 텍스트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핵심은 정보구성과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인 멀티리터러시 능력이 글쓰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멀티리터러시 능력 안에는 다양한 매체를 읽는 능력인 다중매체 읽기 능력 또한 포함된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주어져도 그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은 읽기 능력이 수반되지 못할 땐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되 수업 내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멀티리터러시 능력이 글쓰기 능력과 함께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다중매체텍스트, 복합양식텍스트, 미디어 수사법, 리터러시, 멀티리터러시, 멀티리터러시-글쓰기, 스마트폰

1. 서론

21세기에 들어와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이라는 새로운 지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되는 정보를 읽는 능력인 리터러시의 새로운 확장 또한 요하게 되었다. 이미지, 영상 등 미디어와 접목된 다양한 매체를 읽고 새롭게 조합하는 능력, 즉 멀티리터러시Multiliteracy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멀티리터러시에 대한 문제 제기는 활자 매체를 벗어난 새로운 매체 읽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직결된다. Cope와 Kalantzis(2000)에 의하면, 멀티리터러시는 크게 두 가지 측면, ①커뮤니케이션 매체 및 양식의 다변화와 ②문화적이고 언어적인 다양성의 증가라는 국면에서 교육학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단일한 매체 언어로 구성된 텍스트를 이해하는 전통적인 리터러시를 넘어서 보다 확장된 언어 재현의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공성수,김경수, 2017:15) 그러므로 멀티리터러시 능력은 디지털 텍스트 읽기 능력과 결부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텍스트 읽기 능력은 리터러시 능력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서 멀티리터러시를 구성하는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멀티리러터시 능력 향상을 논의함에 있어 그 첫머리에 디지털 읽기 능력을 놓는 이유는 현재의 세대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문명의 영향을 받은 세대인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은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인 기성세대와는 다른 사고와 행동 양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Norton-Mrier, L.,2005:428-432) 디지털 원주민 세대들의 읽기 능력과 관련한 영역이 중요해진 것이다.

리터러시 능력 중 하나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 된다. ①지식 통합(knowledge assembly), ②정보내용에 대한 평가, ③인터넷 검색, ④하이퍼텍스트 탐색이 그것이다. Bawden(2008)은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고 확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의 주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옥현진, 2013:88)

1. “지식의 조합”,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정보 저장소”
2. **검색 기능**, 이에 더하여 인터넷 자료의 타당성이나 완성도에 대해 경계심을 가진 채 검색된 정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비판적 사고”
3. 비연속적이고 역동적인 **자료를 읽고 이해하기**
4. 네트워크 매체와 더불어 전통적 매체의 가치에 대해서도 인식하기
5. 유입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터링 에이전트 활용하기**
6. 정보에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고 출판하는 것에도 능숙해지기

위의 디지털 리터러시 주요 요소 중 2번, 3번, 5번은 학습자이자 주체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공간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어떤 태도로 접해야하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텍스트 또한 결국 기존의 활자매체가 가진 문식성을 벗어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디지털 텍스트 읽기 능력은 기존의 읽기 능력의 범주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아직 현 사회에서 디지털 텍스트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표현되는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텍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양식의 매체를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바로 여기서 ‘다중매체 언어 읽기’가 도출된다.[1)]

---

1) ‘다중매체 언어 읽기’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어지는 매체와 텍스트를 복합적으로 읽는 것을 중시여기는 용어로서 단일 읽기에서 한 단계 나아가 다중적 읽기를 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들어, 인터넷 뉴스를 읽는다는 것은 활자언어로 된 기사문을 포함해서 사진, 영상 등을 모두 함께 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중매체는 각각의 매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읽는 멀티 읽기에 가깝다. 이에 본고는 ‘문(文)’의 범주에서 벗어나 활자텍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종합적으로 함께 읽는 의미로 ‘다중매체 언어 읽기’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때 멀티리터러시는 지금 도래한 디지털 텍스트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식성을 요하는 활자 텍스트까지도 텍스트의 범주에 포함하며, 그림(회화), 음악과 같은 텍스트도 읽기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다중매체 언어 읽기를 활용하여, 멀티리터러시 능력을 강화하는 학습자가 적극적인 주체적 수용자가 되어 다중매체를 읽고 다중매체를 활용하는 글쓰기, '멀티리터러시-글쓰기'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멀티리터러시와 글쓰기를 연결시켜 수업 모형을 만들고 있는 연구물들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매체의 활용이 단순히 글쓰기 교육의 소재 차원(시청각 자료)이거나 선행 후행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으로 일상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글쓰기 교육 현장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의 모형이 다수 제시되는 양상은 앞으로 글쓰기 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게 해준다.

주민재(2014:137-165)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한 적 있다. 이때 활용된 디지털 플랫폼은 블로그이다. 여기서 제기된 블로그의 유용성은 쇼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가지는 짧은 메시지 전달의 한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글쓰기를 수행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데 있다. 즉 댓글을 통해 원글(post)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고 블로거 및 다수의 방문자들과 지속적으로 토론이 가능하다는 게 블로그 글쓰기의 장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블로그 글쓰기 형식은 수업 시간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멀티리터러시 글쓰기로 나아갈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블로그 글쓰기는 수업 외 활동일 수밖에 없다.

황명미와 이재현(2016:11-42)은 수업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성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에 의해 제

시된 구체적 사례는 스마트 클리커(객관식)와 팝퀴즈(단답 서술형)이다. 하지만 출결과 함께 영화 이해도 평가까지 함께 한다는 두 가지 방식은 선행적으로 학생들이 주어진 매체 텍스트를 미리 보거나 읽고 온 후 퀴즈를 치루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점에서,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가지는 유의미를 찾기 힘들다. 오프라인으로 퀴즈를 치는 것과 큰 차이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때 스마트기기는 멀티리터러시 능력을 요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다. 수업 시간 외에도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방편으로 제시된 카카오톡을 활용한 집단 브레인스토밍도 마찬가지다. 학생들 스스로 열려진 공간을 통해 서로 개인과 개인 간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건 의미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이 또한 수업 이전 혹은 이후에 선행 후행되는 차원에서만 활용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2016:353-377)은 협동 디지털 글쓰기의 대표적 도구인 '위키(Wiki)'를 활용하여 디지털 글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집단 프로젝트의 차원에서 위키의 효용성은 이미 많이 알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협동 작업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은 상호텍스트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만하다. 위키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누구나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이나 확장 프로그램 없이 빠르게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편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에서 위키는 학습 주제에 대해 쉽고 비동시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다. 즉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학습 자료의 공유, 집단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장으로의 활용성을 생각할 때 위키는 주목할 만한 도구이다.

이처럼 교육현장에서 스마트 플랫폼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플랫폼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기기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은 수업의 현장에서는 교

육적으로 십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스마트폰은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고는 일상과도 같은 스마트폰의 활용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법만 제시된다면 스마트폰은 수업을 원활하게 해주는 중요한 연결 매체 기기로 변모할 수 있다.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급진적으로 우리의 일상 공간을 변이시키고 새로운 공간 지형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특히 SNS에 의해 구축된 '네트워크 공간'이 우리 일상공간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어디든 연결 가능한 고리를 가진 디지털 네트워크는 전 지구적 차원의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로서 생활공간의 새로운 지형을 형성한다. 사람들과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연결된다. 이러한 새로운 생활공간의 지형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연결 매체 고리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를 항상 연결하게 하는 사회, 포니사피엔스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교육현장도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로 변화되는 교육환경의 첫 번째 사례에 출결 시스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초기 전자출결시스템이 별도의 기기를 설치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었던 데 반해 최근의 새로운 전자출결 방식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보다 간편하면서도 직접적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로그인은 실제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접속을 의미한다. 이는 곧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수업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어디서나 다른 공간과 연결하게 하는 스마트폰의 활용성이 교육 공간에서도 일상적인 것이 되고 있는 양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 내에 글쓰기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즉 수업 시간 내에 멀티리터러시를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멀티리터러시-글쓰기’는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이라는 실제적 공간에 직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정보를 수합하고 선별한 후 종합 분석하여 글쓰기를 수행했을 때 완성된다. 본고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멀티리터러시-글쓰기’의 현장성을 높이고 학습자들의 다중매체 언어를 읽는 사고력의 확장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를 위해 본고는 스마트 기기의 현장성을 강화하여 실제 ‘멀티리터러시-글쓰기’를 수행할 때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우리는 스마트폰이 PC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하나의 특성을 가지지 않으며, 기존의 문식성을 요하는 활자매체(전자책)를 포함하여 그림, 영상과 미디어 매체를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속하게 해주는 디지털 매체이기도 하다. 즉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 다양한 매체를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다중매체’가 되는 것이다.

2. 다중매체 언어 읽기의 필요성

2016년 다보스 포럼 주제가 4차산업혁명이 된 이래로 4차산업혁명은 주요한 사회적 화두이다. 디지털 기술의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을 융합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고자 하는 창의적 융합 능력을 요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멀티리터러시 능력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핵심역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다중매체 읽기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2)]

---

2) 장미영은 교육전반에서 매체가 활용될 때 매체를 1) 문화전반에서 통용되는 소통도구적 측면, 2) 매체가 가진 학습의 내용 측면, 3) 교육 현장 혹은 교수-학습 현장에서 수업의 도구로, 수업의 과정으로 활용되는 측면,

하지만 멀티리터러시 능력 향상과 연결된 글쓰기 교육의 쟁점은 단순히 매체를 활용하는 데만 있지 않다. 멀티리터러시 교육은 상호텍스트 연결을 통해 이뤄지는 인식의 확대와 세계에 대한 이해, 타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그 쟁점이 있어야 한다. 핵심은 21세기가 원하는 새로운 언어(이미지 언어, 영상 미디어 언어 등)인 다중매체 언어의 활용이다. 그리고 이는 학습자가 생산-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3)]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다중매체 텍스트를 활용한 교육은 흥미 유발이나 교육 자료의 제공 차원에서만 선택된 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한 활용성에만 멈출지라도 다중매체 텍스트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은 전략적으로 효용성이 높은 교수법이다. 특히 그 방법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다중매체 텍스트는 학습자가 문제해결능력의 차원에서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최적의 수단이 된다.

임지원(2015:280)은 매체텍스트는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 않으

---

4) 대중 매체 측면으로 범주화하였다. 장미영, 「다중매체텍스트를 활용한 글쓰기 지도 방법 연구」, 『시학과 언어학』 31, 시학과 언어학회, 2015, pp. 214-215

3) 적극적인 수용자로서 읽기를 수행하고 새로운 사고를 이끌어내며 이를 통해 다양한 텍스트 사이의 상호텍스트적 연결과 수행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연구에 공성수·김경수의 「멀티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수업 모형」(『리터러시연구』 22, 한국리터러시학회, 2017, pp. 11-49)이 있다. 매체언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멀티리터시 향상을 위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때 글쓰기는 멀티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게 핵심 요지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멀티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 살펴보면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여기서 논자들은 요약하기, 바꿔쓰기를 비롯해 비평하기 글쓰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된 매체는 이미지를 읽어야하는 '사진'이었다.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사진을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정보의 종합과 새로운 정보 제시까지 나아간 것이 멀티리터러시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학생 스스로 정보를 수합하고 종합하는 방향이 제시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며, 디지털 시대의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과 더불어 새롭게 요청되는 소통 영역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된 다중 리터러시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이때 매체언어 활용자는 생산자의 개별적인 문자언어, 시각언어, 음악, 영상, 이미지 등에 숨겨진 내용의 올바른 해석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합된 형식으로도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원래 리터러시란 의미는 텍스트에 대한 일차적 읽기나 쓰는 능력뿐 아니라 발견, 이해, 해석, 창조, 소통, 계산 그리고 다른 텍스트와 융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하지만 최근부터는 언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소통하는 리터러시의 개념 자체가 새로이 규정되어 디지털 사회의 문식성 혹은 신문식성(new literacies) 등의 의미로 바뀌고 있다(이순영, 2010:89). 즉 복합양식의 형태를 띠는 다중매체 언어를 읽는 방법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매체 언어를 '복합 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라 일컫기도 하는 이유 또한 문자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단일 양식의 텍스트가 아니라 문자언어, 영상, 소리, 음악, 사진, 이미지 등의 다양한 양식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정현선, 2006).[4] 결국 이는 매체 언어 읽기가 매체 언어의 기호적 의미 파악과 관련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며, 다중매체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매체적 특성을 파악해야 함을 뜻한다.

장미영(2015:207-235)은 매체란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자 '방편'으로, 그 생각이나 정보를 한두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 말한 바 있다. 교육에서 매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은 매체를 통해 표현된 기호와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을 둘 다 이해해야

4) 매체 언어의 복합양식성은 주민재의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복합양식적 쓰기의 수용 가능성」(『새국어교육』 86,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pp. 137-165) 참조.

한다는 점이다(장미영, 2015:211). 매체가 가진 특징에 따라 기호의 의미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중매체 텍스트를 글쓰기 교육에 활용할 때 매체의 특성은 표현 양식의 차이와 정보전달의 수단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확장과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장미영, 2015:211-212) 예를 들어, 이때 주어진 텍스트가 영상매체일 경우, 영상을 읽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때 학생들은 수많은 영상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영상 텍스트를 읽는 방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영상 매체 읽기의 시작은 카메라 기법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특정한 매체가 지닌 전달 방법을 알았을 때 그 매체를 텍스트로서 읽을 수 있다. 핵심은 영상 수사학이다. 즉 카메라를 든 작가는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방식으로 사물을 카메라에 담기 마련이므로 영상매체를 읽는다는 것은 곧 카메라에 담긴 이미지를 읽는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이때 독자는 작가(혹은 기자나 연출자)가 제시한 특정한 형상과 사건만을 볼 수 있으며 주어진 틀 안에서만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5]

그러므로 읽기 방향은 보여주는 자가 의도한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영상을 읽기 위해서 카메라가 사물을 비추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6] 카메라가 사물을 비추는 방법

---

5) 텍스트로서 영화의 수사학 읽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손미란·배혜진의 「'질문법'을 활용한 텍스트 읽기-쓰기 교육- 텍스트로서의 '영화 읽기'를 활용한 읽기-쓰기 연계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49, 반교어문학회, 2018, pp. 253~290) 참고 바람.

6) 전문적인 수준까지의 카메라 기법이 아니더라도 독자로서 최소한도로 갖출 수 있는 영상 수사학으로서 카메라 기법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바로 앵글과 쇼트가 그것인데, 카메라로 대상을 찍을 때 보여주고 싶은 방식의 차이는 모두 앵글과 쇼트에서 비롯되므로 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

에 대해 고민하는 시도는 영상으로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에 익숙한 지금 세대에게 영상물을 항상 '보는 것'으로만 대하는 차원을 넘어 '읽는 것'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핵심은 텍스트 간의 상호 텍스트성과 언어 읽기이다. 상호텍스트성을 이용한 글쓰기는 각각의 독립적인 언어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언어 지형을 형성케 해줄 것이다.

3. 스마트폰의 현장성 강화와 '멀티리터러시-글쓰기' 교육 목표

핵심은 스마트폰이 언제나 연결된 새로운 공간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아이디어를 결합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데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아이디어 생성을 가장 힘들어하는 기초 학습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때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찾고 활용하는 글쓰기를 수행하기 전에 꼭 수행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글쓰기 윤리'이다. 글쓰기 수행과 관련한 윤리에 대한 부분은 꼭 시간을 할애해서 교수해야 할 요소이다. 특히 '글쓰기 윤리'와 '인용'에 대한 수업은 멀티리터러시 학습법과 인용을 통한 글쓰기를 수행하고자 할 때 그 첫머리에 둘 만큼 무게가 크고 중요하다.

인용과 관련한 글쓰기 윤리에 대한 수업을 선행한 후, 본고가 진행한 수업의 방향을 정리하면 크게 세 차원으로 나뉜다.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영상 텍스트를 바라보는 시각은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사물을 비추는 방법의 다양함에 대해서 먼저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18학년도 2학기 글쓰기 수업에 다중매체로서의 영상 매체 언어 읽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 후, 멀티리터러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글쓰기 윤리와 인용(인용과 표절)
둘째, 다중매체 읽기 방법(텍스트로서의 영상 매체 읽기)
셋째, 다중매체 읽기를 활용한 멀티리터러시 글쓰기(정보탐색과 정보 선별 및 종합)

위에 제시한 수업의 방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멀티리터러시-글쓰기'는 정보 탐색과 구분, 그리고 정보 구성력 기르기와 관련된다. 다중매체 읽기의 일환으로 본고는 활자 매체를 포함하여 영상 매체와 관련해 다양한 텍스트 읽기를 활용하였다. 이때 영상 매체는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수업의 경우, 리터러시 능력의 향상과 정보 구성 능력의 향상을 위해 뉴스(영상)와 신문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 소재로 활용하고 인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다중매체 읽기를 위한 영상 매체 텍스트로 '인터넷 뉴스'를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특정 뉴스를 제시하진 않았으며, 함께 공유한 주제 아래에서 뉴스를 검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은 학습자인 학생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뉴스가 활자 매체(기사문)와 함께 이미지 혹은 영상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뉴스라는 텍스트는 복합적인 읽기를 통해 사고의 복합적 작용을 요하는 대표적인 다중매체라 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 공간에 있는 뉴스는 그 자체로 다중 언어 읽기를 요하는 다중매체가 되는 것이다.

다중매체를 활용한 멀티리터러시 수업진행 방향은 다음과 같다.[7] 이때 스마트폰은 매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된다.

---

7) 본고는 영남대학교 기초교양 글쓰기 강좌인 '융복합 글쓰기'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멀티리터러시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다음은 2018학년도 2학기 대상의 세부사항이다.

다중매체 읽기 텍스트	**대상 인원**			
뉴스영상, 사진 및 기사문	전공	학년		총 인원
	로봇공학과	1학년	21명	21명

차시(75분)		수업 목표 및 교수-학습 활동
1 2	다중매체 이해하기	**글쓰기의 윤리와 인용의 문제** - 글쓰기의 윤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글쓰기 점검 질문지 이해하기) - 인용이 갖추어야 할 틀에 대해서 이해하고 출처를 밝히는 방법을 이해한다.
		다중매체 읽기와 그 방법 - 다중매체의 의미를 이해한다. - 영상매체를 읽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해한다.(앵글, 쇼트, 커트, 장면전환)
3 4	조별 활동 및 주제 설정	**글쓰기 주제 생성을 위한 조별 토론/토의** - 조원들과 자유로운 토론/토의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생성한다. - 생각을 정리하고 주제를 정립한다. (참주제 정립)
		스마트폰을 활용한 멀티리터러시와 정보 수집 - 주어진 시간 내에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 수집한 자료를 조원들과 공유하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 개별 글쓰기 주제를 정립한다.
5 6	멀티 리터러시 글쓰기	**'멀티리터러시-글쓰기'의 실제 1** - 정보 수집과 종합을 통해 개요를 구상한다.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글감으로 활용한다. - 인용을 했을 경우 정확한 출처를 밝혔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멀티리터러시-글쓰기'의 실제 2 - 수합 종합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목차)에 따라 글쓰기를 수행한다. - 개요는 마지막까지 수정 될 수 있으며, 개요가 목차가 되는 과정을 학습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글쓰기 점검 질문지를 토대로 고쳐쓰기(퇴고)를 수행한다.

[표 1] 멀티리터러시 수업계획서

---

* 멀티리터러시 글쓰기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특별한 주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글쓰기의 유형으로 신문과 뉴스영상 및 사진을 활용한 시사적 글쓰기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주제 설정은 조별토론/토의를 통해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별활동은 아이디어 생성과정을 공유하고 동일한 주제 안에서 다양한 시각의 도출을 경험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최종 글쓰기는 개별글쓰기로 진행되었다.

* 대상 강좌에는 총 21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다중매체를 읽는 방법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례로 제시한 질문지는 ①최대한 모든 항목을 성실하게 작성하였고, ②보편성을 가진 것으로 선정하되, ③다양한 유형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성을 띤 것을 선정하였다.

자신이 구성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도와주는 자료를 검색하고 무한히 쏟아지는 정보를 추리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핵심은 수업 중 이루어지는 활동성이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또 다른 수많은 공간(다양한 포털 사이트나 SNS 공간들)과 접속함으로써 얻은 정보들을 수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찾으려하고 해당 자료를 어떻게든 활용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데 있다. 찾은 정보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건 당연하므로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학생들에게 순간적인 집중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특기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5차시에 이르면 멀티리터러시 글쓰기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본고는 '점검 질문지'를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본인이 찾은 자료의 적합성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질문지의 방향은 과도하게 교수자가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학습자가 주체적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점검 질문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뒤의 4장 2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때 핵심은 절차적 과정의 체계성이다. 이러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학습자가 멀티리터러시 글쓰기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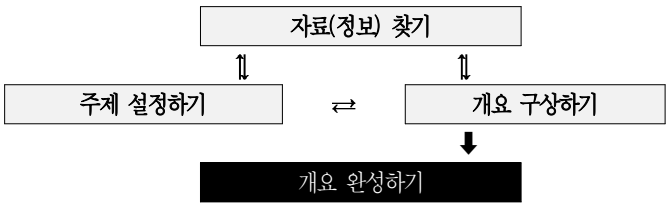
4. ‘멀티리터러시-글쓰기’의 실제

1) ‘멀티리터러시-글쓰기’ 준비와 과정

멀티리터러시 글쓰기의 시작은 자료를 찾고 수합 및 종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때 교수자는 주제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주제를 설정하는 것과 자료를 수합하는 것은 연계되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으므로 주제를 찾는 것에서부터 정보를 수합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학습자들에게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학생들이 본격적인 글쓰기를 수행하기 전에 충분히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자료를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대다수 대학의 글쓰기 수업은 ‘주제 설정하기, 개요 구상하기, 자료(정보) 찾기’가 함께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글쓰기 재료에 해당하는 자료는 현장 글쓰기 수업 이전에, 선행학습으로만 할 수 있었던 게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선행학습을 착실히 행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다수의 학생들은 글쓰기 정보가 무(無)에 가까운 상태에서 글쓰기를 행하게 됨으로써 항상 글쓰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 작성함으로써 논거가 빈약한 형상을 보이게 된다.

대부분의 글쓰기는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합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논거를 찾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 가능하다.



[그림 1] 글쓰기 과정과 정보구성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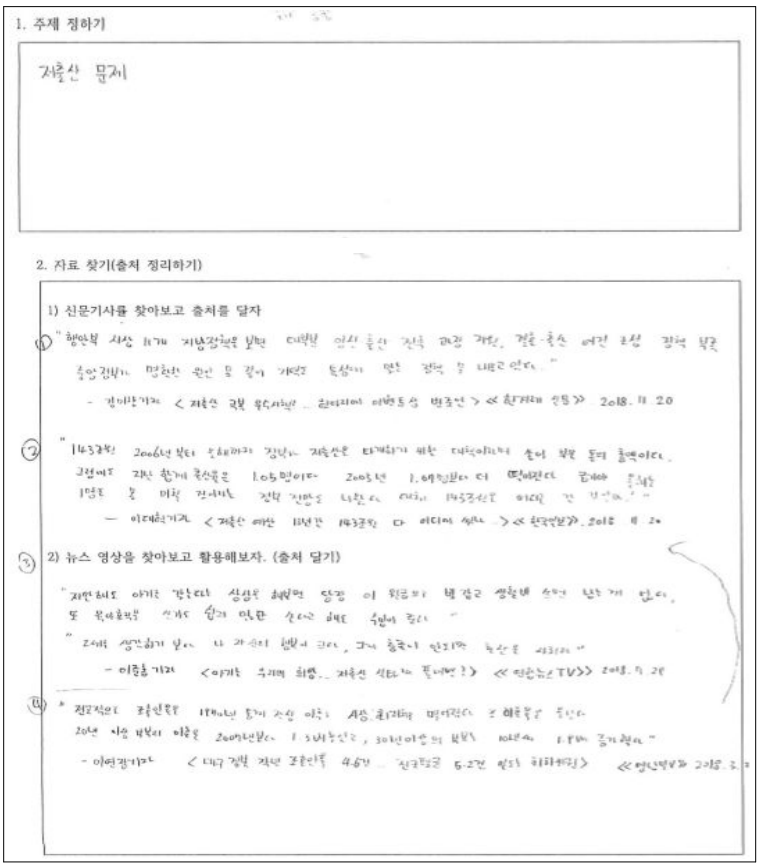
즉, 개요를 완성하기까지의 주제 설정, 개요 구상 단계는 자료를 찾는 정보 수합과 관련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본고는 학생들이 절차적 글쓰기를 수행하되, 정보를 수합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글쓰기 준비과정을 실행하였다. 이는 리터러시 글쓰기가 가지는 특성을 학습자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방식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리터러시-글쓰기 준비'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이뤄졌다.

① 주제 정하기
② 자료 찾기
③ 자료 종합하기
④ 개요 구상(구성)하기

'리터러시-글쓰기'를 위한 4단계에서 핵심은 ②, ③에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글쓰기 주제를 선정하는 데 앞서 자료를 찾고 종합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다시 종합하고 개요를 구성하는 방향에서 주제를 명료화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다음의 사례들은 그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먼저 사례 1(학생 1)의 준비 과정을 보자. 학생 1은 자료를 찾는 과정과 자료를 종합하는 과정이 개요를 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 눈에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1. 주제 정하기

저출산 문제

2. 자료 찾기(출처 정리하기)

1) 신문기사를 찾아보고 출처를 달자

① "행안부 시상 11개 지방정책을 보면 대부분 영산 출산 진흥 과정 지원, 결혼·출산 여건 조성 정책 부족 출입정부나 명확한 원인 등 같이 지역도 특성에 맞는 정책 등 내놓고 있다."

- 김미향기자 <저출산 국부 유수사업 … 현미리에 이번특성 변조인> <<한겨레 신문>> 2018. 11. 20

② "143조원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는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쏟아 부분 돌려 출액이다. 그럼에도 지난 한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2005년 1.09명보다 더 떨어졌다. 곱해야 통계는 1명도 못 미치 것이다. 정부 전망도 나왔다. 이미 143조원을 이미 간 것이다."

— 이대혁기자 <저출산 예산 11년간 143조원 다 어디에 썼나 …> <<한국일보>>. 2018. 11. 20

③ 2) 뉴스 영상을 찾아보고 활용해보자. (출처 달기)

"저만해도 아기를 갖는다는 상상을 해보면 당장 이 원금과 벌 잡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다. 또 육아휴직을 쓰기도 쉽지 않고 쓴다고 해도 수입이 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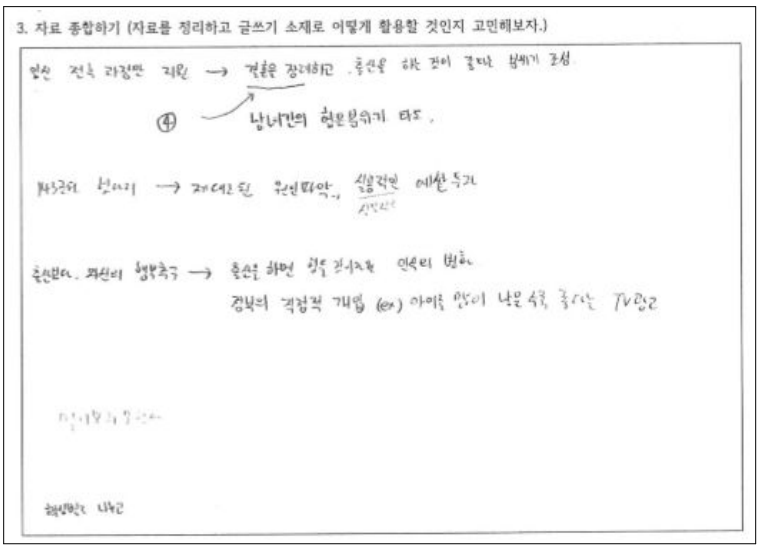
"2세부 생각하기 보다 나 자신의 행복이 크다, 그게 출국이 안되면 출산을 사라지"

- 이준홍기자 <아기는 우리의 희망… 저출산 식탁을 풀어낼 ?> <<연합뉴스TV>> 2018. 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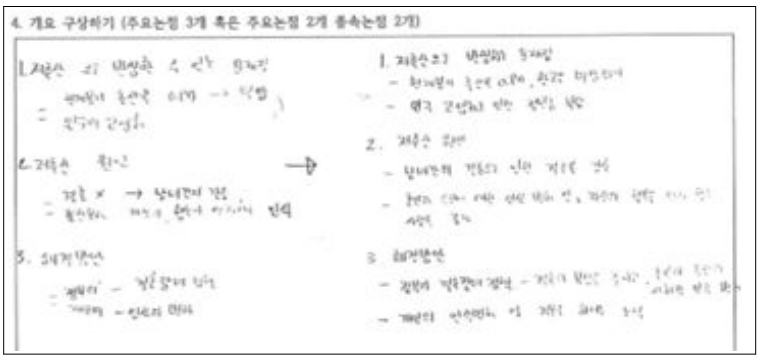
④ "전국적으로 조출인원을 18만년 통계 조상 이후 A상 최저치를 떨어졌다. 조 이후율을 올린다. 20년 이상 부부의 이후율 20만년보다 1.3배는 있고, 30년이상의 부부는 10년에 1.8배 증가했다."

- 이연정기자 <대구 경북 작년 조출인원 4.6건 … 전국평균 5.2건 밑도 하하세권> <<영남일보>> 2018. 3. 2

사례 1-1 (학생 1) 주제 정하기, 자료 찾기



사례 1-2 자료 종합하기



사례 1-3 개요 구상하기

이때 본고는 수업 시간 내에 스마트폰으로 자료를 찾을 때마다 출처를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했으며, 자료가 활용되는 양상 또한 메모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1은 이를 순차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학생 1은 주제를 먼저 선정하고 자료를 찾은 경

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료를 찾고 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개요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사항이다.

2. 자료 찾기
1) 신문기사를 찾고 출처를 달아보자
④ "전국적은 조혼인률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조이혼률은 올랐다.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2007년보다 1.3배 늘었고, 30년 이상의 부부는 10년 새 1.9배 증가했다." - 이연정 기자, 〈대구 경북 작년 조혼인율 4.6건, 전국 평균 5.2건 밑도는 최하위권〉, 〈〈영남일보〉〉, 2018.3.21.

3. 자료 종합하기
임신 전후 과정만 지원 -〉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좋다는 분위기 조성
↓④ 남녀 간의 혐오 분위기 타도

위의 내용은 학생 1이 수행한 '자료 찾기'와 '자료 종합하기'의 한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때 주목할 부분은 '결혼 장려' 부분과 관련해 '자료 찾기'에 정리해 놓은 자료 ④를 활용할 것임과 그 해결방안에 해당하는 사항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보이는 데 있다. 그리고 난 후, 학생 1은 완성된 개요를 통해 종합하기 결과가 개요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 학생 1의 완성된 개요를 살펴보면 이는 더욱 분명히 확인된다.

4. 개요 구상하기
1.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 현재분기 출산률 0.97, 한국은 멸망위기
- 인구 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부담
2. 저출산 원인
- 남녀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결혼률 감소
-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호 및 자신의 행복을 먼저 찾는 사람들 증가
3. 해결방안
- 정부의 결혼장려 정책 : 결혼을 부담을 줄이고, 혼인과 독신의 사회적 인식 변화
- 개인의 인식변화 및 결혼을 하려는 노력

자료 ④는 1절과 2절의 '저출산 원인'에서 활용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의 개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 1의 경우, 글을 구성하기 위해 종합한 자료는 서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다음은 학생 1이 작성한 서론의 한 부분이다.

사례 1(학생 1) -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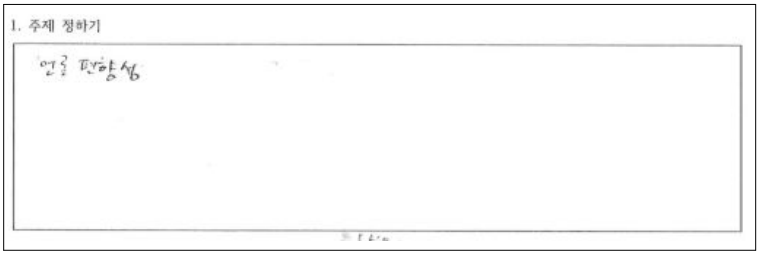
"143조원,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의 총액이다. 그럼에도 지난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2005년 107명보다 더 떨어진다. 대체 143조원은 어디로 간 것일까?"1) 위의 기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2006년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김미향 기자, 〈저출산 예산 13년간 143조원 다 어디에 썼나‥〉, 〈〈한국일보〉〉, 2018.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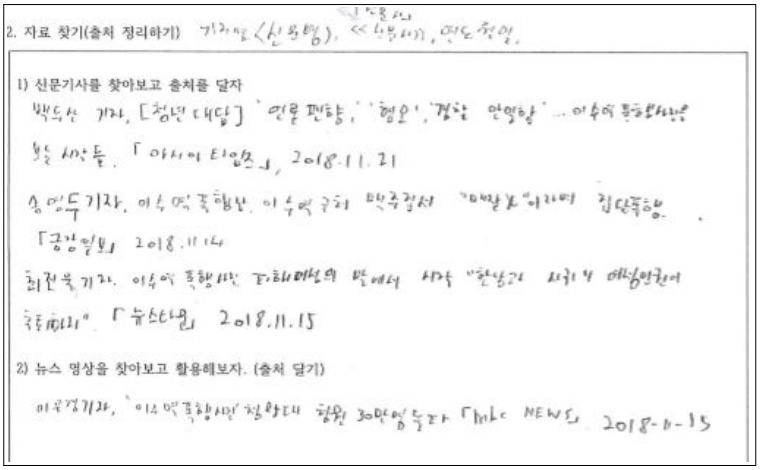
사례 1에 해당하는 학생 1의 글쓰기 과정은 절차적 글쓰기가 순차적인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정보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21세기 이후 지향하는 대학 기초글쓰기의 방향이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수합하는 리터러시 능력과 연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 사례 2에 해당하는 학생 2는 리터러시 능력 안에서 비판적 읽기와 관련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물론 학생 2가 완벽한 형식의 비판적 글쓰기 유형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기초학습자로서 매체가 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는 학습자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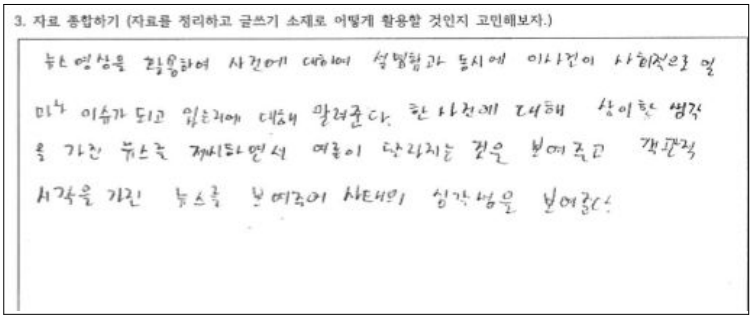
사례 2-1 (학생 2) 주제 정하기



사례 2-2 자료 찾기



사례 2-3 자료 종합하기



다음은 위의 내용 중 일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2. 자료 찾기
2) 뉴스 영상을 찾아보고 활용해보자.
이유경 기자, 「'이수역 폭행사건' 청와대 청원 30만명 돌파」, MBC NEWS, 2018.11.15.

3. 자료 종합하기
뉴스 영상을 활용하여 사건에 대하여 설명함과 동시에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알려준다. 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생각을 가진 뉴스를 제시하면서 여론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객관적 시각을 가진 뉴스를 보여주어 사태의 심각을 보여준다.

학생 2는 신문기사 뿐만 아니라 뉴스 영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경우에 해당했다. 신문 기사와 같은 보도 매체가 가지는 특징과 그 전달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학생 2의 글쓰기 주제에 문제 제기에서부터 중요한 화두였음을 다음 서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는 결론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사례 2 (학생 2) - 서론

우리는 매일 새로운 뉴스를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된다. 하지만 그 뉴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보도되는 시각에 따라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중립적 시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편향되게 사건을 보이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에 '이수역 폭행사건'이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하루 30만명 넘는 사람이 몰릴 정도'로 유명해졌다.1) 하지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사건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심지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기도 한다.

1) 이유경 기자, 〈'이수역 폭행사건' 청와대 청원 30만명 돌파〉, 〈〈MBC NEWS〉〉, 2018.11.15.

사례 2 - 결론

> 이처럼 뉴스는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와 여성인 경우, 사건의 전달 방식 자체가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를 접할 때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중립된 입장에서 진실된 눈으로 내용들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위의 사례가 보여주는 주제 양상은 멀티리터러시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비판적 읽기에 대한 부분을 적극 반영한 경우라 할 수도 있다. 주지했다시피,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서 획득되는 읽기 매체는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를 위해 무수하게 주어지는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읽는가가 중요했는데, 이를 본고는 서론에서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했었다. 이러한 사항은 '멀티리터러시-글쓰기'를 수행하기 전에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설명된 부분이기도 하다. 이때 학생 2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항을 핵심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매체 읽기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학생 2의 글쓰기 유형과 관련해서, 위에서 제시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볼 수도 있다.

> 2. 검색 기능, 이에 더하여 인터넷 자료의 타당성이나 완성도에 대해 경계심을 가진 채 검색된 정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비판적 사고"
> 3. 비연속적이고 역동적인 자료를 읽고 이해하기

멀티리터러시 능력에 있어 가장 핵심 사항은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수합하고 그것을 읽고 이해한 후에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그렇게 볼 때,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 강화 형식의 '멀티리터러시-글쓰기'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높이고 비연속적으

로 주어지는 자료를 종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이 분명하다.

2) '멀티리터러시-글쓰기'의 자기 점검

우리는 위의 3장 2절에서 제시한 '점검 질문지'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멀티리터러시-글쓰기'의 시작이 비판적 사고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정보를 찾고 수합하는 '멀티리터러시-글쓰기'에서 글쓰기 윤리를 위한 글쓰기 점검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할만큼 아주 중요하다.

이때 본고는 '점검 질문지'의 방향을 OECD에서 실시하고 있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가 가진 평가틀에서 찾았다.(옥현진, 2013:90) OECD에서 제시한 디지털 텍스트 읽기 평가인 PISA의 평가틀은 크게 다음 다섯 범주로 나뉜다. '①정보 검색하기, ②광범위한 이해, ③해석하기, ④텍스트 내용에 대한 성찰과 평가, ⑤텍스트 형식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다음 세 단계로 정리된다.

- **접근 및 확인** :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정보가 있는 곳에 접근하여 탐색하며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하기
- **통합 및 해석** : 한 텍스트의 각 단위(단어, 문장, 문단 등) 간에 존재하는 응집성과 여러 텍스트 사이에 존재하는 응집성에 대해 이해하고 텍스트의 표면에 명시되지 않은 의미를 구성하기(어구나 문장의 내포적 의미 추론, 텍스트 이면의 의미 관계 인식 등)
- **성찰 및 평가** : 텍스트와 관련 짓기 위해 독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텍스트 외부의 지식 등을 참조하고, 텍스트 외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텍스트에 대해 어떤 가치 판단 내리기

위와 세 가지 핵심 사항을 토대로 본고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점검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표 2] 영상매체를 포함한 자료 점검을 위한 질문지

자료 찾기 및 글쓰기 구상 단계에서의 질문
1. 자료의 출처는 명확한가.
2. 글쓰기 주제와 자료가(의도 및 메시지) 가지는 연관성은 어느 정도인가.
3. 텍스트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에 입각하고 있는가.(특히 뉴스 영상의 경우, 영상수사학을 고려하여 살펴보고 있는가.)
글쓰기 수행 단계에서의 질문
1. 자료를 오독하고 있지는 않은가.
2. 텍스트의 메시지 읽기가 과도한 해석이 되진 않았는가.
3. 필요에 의한 부분 발췌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위의 [표 2] 점검 질문지에서 중요한 점은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독자이자 제2의 창작자로서 글쓴이가 글쓰기를 윤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있다.

이에 본고는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글쓰기 수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두 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자료 찾기 및 글쓰기 구상 단계에서 본인이 찾은 정보(디지털 정보)가 가지는 효용성과 적절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SNS가 대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출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출처가 명확한 자료를 확인하고 그 출처가 가지는 신뢰도가 본인 글의 객관성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꼭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이 해결되었을 때, 학생들은 본인 글의 주제와 자료 사이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때 첫 번째 단계인 자료 찾기와 관련한 단계에서 특기할 사항은 3번 질문이다. 뉴스 영상이라 할지라도 기자는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상을 편집하게 되어 있다.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가 때로는 가장 주관적인 텍스트의 형태를

띤다는 것을 학생들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 '선별' 혹은 '선택'된 인터뷰 대상자가 때로는 팩트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왜곡할 수밖에 없는 방향을 가리키는 게 뉴스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점검 단계가 끝나면 글쓰기를 수행하는 과정부터 퇴고를 하는 순간까지 몇 번이고 점검해야 하는 두 번째 점검사항이 제시된다. 이때의 질문들은 퇴고 시에만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적용된다. 특히 정보 이해와 종합적 판단에 해당하는 리터러시 능력을 점검하는 차원이기도 하므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와중에도 정보를 받아들이는 자는 본인이 스스로 만든 틀 안에서만 정보를 이해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편집과 클로즈업으로 한 가지 국면을 부각시키는 이미지와 영상 텍스트의 경우엔 더욱 위험하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몇 번이고 텍스트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필요에 의한 부분 발췌에의 욕구를 누르게 하는 조심성을 강조하는 것도 꼭 필요한 점검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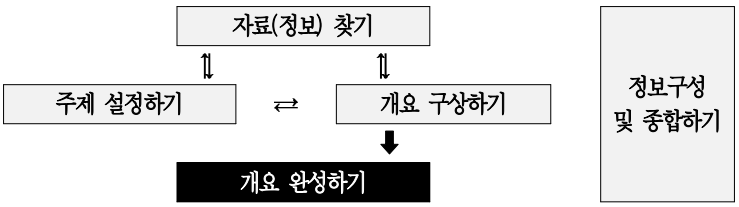
5.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다중매체 언어 읽기와 '멀티리터러시-글쓰기' 교육의 연계를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수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다중매체 언어 읽기라는 것 자체가 고도의 디지털 문식성을 요하는 멀티리터러시 능력과 직결된다고 볼 때, 매일같이 셀 수도 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어떻게 수합하고 종합하여 글쓰

기와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수불가결하다.

대학 기초글쓰기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학술적 글쓰기가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기 힘들어하며, 전공과목을 비롯해 교양 강좌에서 수행하는 글쓰기에 그 형식과 방법을 접목시키기까지 꽤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올바른 문법을 사용하고 올바른 문장을 작성하는 방법 또한 글쓰기에선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의 학생들은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새롭게 문장을 구성하기보다는 문장을 편집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수행한다. 이는 다시 말해, 현재의 글쓰기 교육이 새로운 매체 읽기 능력 향상과 함께 리터러시 능력을 활용한 재구성의 방식이 핵심으로 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위에서 제시한 [그림 1]은 다음 [그림 2]와 같이 수정 보완될 수 있다. 글쓰기 과정 전반에 주제 설정과정을 포함해 글쓰기 정보와 관련한 자료를 찾고 수합 종합하는 과정이 함께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글쓰기 과정과 정보구성·종합하기의 관계

결국 핵심은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구성하고 종합하는 능력인 멀티리터러시 능력이 글쓰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거꾸로 글쓰기가 멀티리터러시 능력 향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멀티리터러시 능력 안에는 다양한 매체를 읽는 능력인 다중매체 읽기 능력 또한 포함된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주어져도 그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은 읽기 능력이 수반되지 못할 땐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멀티리터러시-글쓰기' 수업 방법이 지닌 효용성은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통해서 그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강의평가에 작성된 학생들의 주관식 답변들의 일부이다. 설문조사는 포함할 수 없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의평가 주관식 의견은 흥미롭게 볼 부분이다.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자료를 찾고 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출처를 다는 방법을 제대로 익힌 거 같아 좋아요.
인용과 각주 다는 방법을 배운 게 가장 좋았습니다.
영상, 사진 등을 읽는 방법을 배우고 글을 쓰니 이전보다 더 다양한 시각을 넣을 수 있어 글쓰기가 쉬워진 거 같았어요. 다음엔 영상 읽는 것과 관련한 수업을 더 듣고 싶어요.
폰을 수업 때 활용해서 좋았다.
스마트폰이 수업시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과 좋은 자료를 찾는 방법을 알아서 좋아요.
자료를 충분히 찾으면서 글을 쓸 수 있으니 좋았습니다. 출처를 밝히라고 해서 그런지 그저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고민하면서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시간이 좀더 넉넉했으면 한다.

위의 강의평가에서 학생들이 관심가지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밝히는 방법. 둘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료의 활용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21세기형 글쓰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학생들의 관심이 하나로 만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언제나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고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은 이미 교실 한 복판으로 들어와 있다. 교수자

에게 질문을 하는 것보다 인터넷 백과사전을 검색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더 이상 교수자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학생은 스스로 정보를 선별하고 종합하는 방법을 찾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교수자는 학생들이 주체적이고도 비판적 수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치에 있다. 즉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의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터러시-글쓰기' 교수의 핵심인 것이다.

참고문헌

공성수・김경수, 「멀티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수업 모형」, 『리터러시연구』 22, 한국리터러시학회, 2017, pp. 11~49

김종윤・서수현・옥현진, 「디지털 문식성의 정의적 특성 탐색을 위한 정의적 영역 평가도구 구인 간의 관계성 분석」, 『새국어교육』 107, 한국국어교육학회, 2016, pp. 37~65

민춘기, 「디지털 글쓰기의 수업 계획 시안 및 대학생의 인식 분석」, 『교양교육학회』 11(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pp. 131~172

손미란・배혜진, 「'질문법'을 활용한 텍스트 읽기-쓰기 교육- 텍스트로서의 '영화 읽기'를 활용한 읽기-쓰기 연계를 중심으로 -」, 『반교어문연구』 49, 반교어문학회, 2018, pp. 253~290

옥현진, 「디지털 텍스트 읽기 능력과 디지털 텍스트 읽기 평가에 대한 일고찰」, 『새국어교육』 94,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pp. 279~307

이수진, 「위키(Wiki)를 활용한 대학 인문학 수업의 디지털 글쓰기 교육」, 『문화와 융합』 38(4),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pp. 353~377

이순영,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독자와 비판적 읽기」, 『독서연구』 24, 한국독서학회, 2010, pp. 87~109

이애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디지털 역량의 개념적 특성과 한계」, 『교육문화연구』 21(3),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5, pp. 179~200

이혜경, 「다중텍스트를 활용한 대학 글쓰기 지도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1),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pp. 207~235

임지원, 「참여적 글쓰기를 위한 복합양식 리터러시 기반의 매체언어 연구」, 『사고와 표현』 8(2),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5, pp. 279~307
장미영, 「다중매체텍스트를 활용한 글쓰기 지도방법 연구」, 『시학과 언어학』 31, 시학과언어학회, 2015, pp. 207~235
정현선, 「'언어·문화·소통 기술'의 관점에서 본 미디어 리터러시의 고찰」, 『한국학연구』 2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pp. 71~101
주민재,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 – 블로그를 활용한 교수자 및 동료 피드백 효과 제고와 필자로서의 책임감 형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8(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pp. 137~165
황영미·이재현, 「스마트교육 환경에서의 대학글쓰기 교육 모델 연구 – 영화 평 협동글쓰기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0(2), 한국교양교육학회, 2016, pp. 11~42

Norton-Mrier, L., "Joining the video-game literacy club".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48, 2005, pp. 428~432.
cope, B. & Kalantzis, M., *Multiliteracies : Literacy learning and the design of social futures.* Psychology Press, 2000.

(투고일: 2019. 5. 24. 심사완료일: 2019. 6. 20. 게재확정일: 2019. 6. 20.)

소속: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의사소통교육부 전임연구원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의사소통교육부
전자우편: sfsfs1004@hanmail.net

[Abstract]

Multimedia Language Reading and Multiliteracy Writing Education

-Focusing on the Applicability of Smartphone -

Son, Mi-ran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emergence of a digital network space, as a new topography, it is also required to newly expand literacy, which is an ability to read information, created in various ways. It means this age needs an ability to read different media, such as image and video and mix them in new ways, that is to say Multiliteracy. An important thing in education using media is to understand signs expressed through media and characteristics of media to convey, at the same time. For instance, if a given text is a visual medium, it must be done first to educate how to read an image. Students encounter a huge number of images when searching and using information.

Multiliteracy writing is completed when gathering and selecting information and analyzing them overall, by directly 'connecting' to a digital network space that is a realistic sp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here. This study is intended to enhance presence of multiliteracy writing and seek a method of expanding digital thinking power of learners. For achieving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smartphone in class, as well. The key point is that multiliteracy, an ability to organize and integrate information, influences writing. In this paper, a smartphone was used to perform these processes synthetically and enhance the presence during an instruc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digital literacy and multiliteracy of students improved along with writing skills.

Key words: Multimedia-Text, multimodal text, media rhetoric, literacy, Multiliteracy, Multiliteracy Writing, Smartphone